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예술분야 올해의 신작 지원심의평

전통예술 분야

- 일정 및 장소 : 5.10(수), 5.12(금), 창의예술인력센터 실험무대 및 창조관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성욱, 김진이, 김효분, 반무섭, 윤원상

전통예술분야 올해의 신작 부문에는 당초 7편이 선정되었으나, 1개 단체가 사정상 심의를 포기하여 총 6편의 작품에 대한 실연심의를 이루어졌다. 실연 참가작 중 3편은 중대극장, 3편은 소극장 작품이었고, 작품의 수월성(50%), 제작의 실현 가능성(30%), 관객평가(10%)를 심의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총 6편의 실연심의 작품 중 3편은 판소리에서 출발했다. 안이호의 <성실한 당신(가제)>은 수궁가에 맥을 두고 출발해 판소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소리꾼을 통해 현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나래의 <미디어음악극 옹녀>는 변강쇠가에서 왜곡되어진 옹녀의 이미지를 다양한 미디어와 음악을 결합시켜 관객들과의 정서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향하의 <완창판소리프로젝트 1>은 소리꾼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무대 위의 또 다른 화자인 고수의 역할을 새롭게 해석하여 동초제 심청가를 풀어내었다.

나머지 3편은 각각 전통무용과 연희(탈춤), 콘서트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작품이었다. 이주희무용단의 <죽지랑환상(죽만환상)>은 천 년 전부터 향가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화랑 이야기를 몽환적 회상으로 전개시킨 전통무용의 창작과 더불어 연등회의 새로운 작법을 선보이고자 했다.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오셀로와 이야기>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오셀로의 주요 인물들과 사건을 전통 탈춤의 여러 형상으로 해석하여 무대적 스펙터클을 이루고자 했다. 사단법인 정가악회의 <아리랑, 삶의 노래 - 흩어진 사람들 2>는 전쟁 후 독일 포로수용소의 고려인과 그 후손의 삶의 시선으로 디아스포라, 조국, 아리랑, 남은 숙제들을 말하고자 했던 다큐콘서트였다.

심의위원들은 작품별 20분간의 실연과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수준을 판단하고 세부 장르별 배분에 대해 고민했다. 1차 서류심의, 2차 프레젠테이션, 3차 실연에 이르는 과정에서 1차, 2차 심의 시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지만 실연심에서 그 성과가 충분히 읽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실연만으로 보았을 때 공연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되어 더 이상의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실연심의 후 심의 위원들은 종합토론을 거쳐 개별 채점한 점수와 관객평가 점수를 취합하여 순위와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3개 작품(중대극장 2편, 소극장 1편)을 올해의 신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작품의 순위와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작품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이향하의 <완창판소리프로젝트>는 현대의 판소리, 특히 고수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하여 전통 판소리의 예술성과 원형을 살리면서도 양식적인 면에서 동시대성을 획득했다. 발상의 전환이 신선했고 결과물도 일정 수준 이상이였다. 굳이 몇 내지 않아도 작품의 의미가 살아났고, 판소리가 가진 음악성을 넘어서는 소리꾼과 고수의 연희가 즐거운 볼거리였다. 본인의 예술적 역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중대극장에서의 공연을 추진하는 실험성과 확장성에도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사단법인 정가악회의 <아리랑, 삶의 노래 - 흩어진 사람들 2>는 영상의 소재가 되는 국가가 브라질에서 독일로 바뀌었지만 ‘아리랑’과 ‘디아스포라’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방면으로 확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왔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었다. 창작산실이라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성과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우려와 아쉬움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지원작품에 대한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완성도와 음악적 수준이 매우 높은 점이 인정되었다. 음악이 삶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려는 의도 자체를 높이 샀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으로 벽찬 감동을 줄 수 있어 과급효과가 큰 작품이었다. 작품을 발전시키며 영상과 음악의 적절한 조화와 원활한 진행에 대한 나름의 방식을 찾아내리라 기대한다.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오셀로와 이아고>는 전통탈춤의 현대적 적용에 대해 많이 고민하여 탈춤 요소를 잘 살려나가는 점이 좋았다. 풍자와 해학이라는 부분이 현대적인 감각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현대화된 탈춤공연의 화제성, 소재와 아이디어 모두 훌륭했지만 반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연극과 음악과 탈춤이 개별로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각각의 틀에서 고정화되어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세련된 무대연출, 줄거리 표현 이상의 은유적 표현이 요구되며, 바쁜 활동 속에서 유기적인 작업이 가능할지 우려되기는 하지만 참여자들 개개인이 가진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많은 부분에서 보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나래의 <미디어음악극 옹녀>는 흥미로웠고 실연으로서의 완성도 역시 있었다. 하지만 예술적 깊이에서 보면 미디어음악극이라는 방향성은 그다지 창의적이거나 새롭지 않았다. 개인의 음악성과 연기력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충분히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였다. 그러나 작품규모에 비해 음향, 영상 등의 쓰임이 과하게 느껴졌고, 미디어의 사용목적과 효과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다. 개개인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는 면에서는 부조화를 이루었고, 개인적인 역량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볼거리는 부족했다.

안이호의 <성실한 당신(가제)>는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전통 판소리에 머물지 않는 진지한 실험성에 많은 기대를 주었던 작품이었으나, 실연에서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지 못했다. 새로운 시각과 접근은 참신하였고 남은 제작기간 동안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 간에 많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실연에서 보여진 것만으로는 뚜렷한 확신을 갖게 하지 못했고, 작품 전달력과 파급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주희무용단의 <죽지랑환상(죽만환상)>은 전통춤을 각색한 준비성 있는 작품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창의성 면에서는 확신을 주진 못했다. 만약 창작산실사업이 아니었다면 완성도 있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이었을 것이나, 전통춤의 부분적인 변화나 개별 장면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유니버스 특성 이상의, 완결된 스토리 구조가 아쉬운 작품이었다. 창작산실이라는 사업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보완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연심의 종료 후 심의위원들은 향후 방향성, 장르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종합토론을 하였고, 이후 심의위원들의 개별 채점결과와 관객평가 결과 순위가 일치하여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 창작산실 사업이 현행 지원금제도 아래서는 가장 지원금이 높아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수준 높고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